■ 법률 칼럼

최근 이민 소식

1. 시민권 시험 개편안 발표

1) 변경 시기: 2024년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경사항 2가지: 공민/역사 시험의 양식의 변경과 영어시험에서 Speaking 시험이 직접적으로 도입

– 공민/역사 시험 양식이 기존의 단답식에서 선다형으로 변경됩니다.

미 연방이민국(USCIS)가 제시한 예로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의 시험에서는 미국이 1900년대에 참가했던 전쟁을 하나 들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1940년대에 참전한 2차 세계대전을 단답으로 답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 1800년대에 참가했던 미국-멕시코 전쟁, 미국-스페인 전쟁, 남북전쟁등을 선다형에 섞어서 1900년 전쟁을 찾아내야 하는 식으로 시험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미국 역사에 대한 이해하고 있어야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영어시험 양식의 변경

Speaking/understanding 능력을 이민 심사관의 질문을 잘 이해하는지 그리고, 시민권 질문지에 적힌 내용을 제대로 대답하는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험을 해 온 것이 과거 시험의 양식이었으나 새 시험 양식에서는 특정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의 내용을 간단하게 영어로 설명하는 등 어느 정도 영어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하는 양식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2. 최근 시민권 경향

1) 영주권 합법성 관련 심사 강화

시민권 합법성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한 증거들 즉, 세금보고서, W-2, paystub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Santa Ana 이민국의 경우는 이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A 이민국의 경우는 이민관에 따라 이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한 서류 제출을 대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요망됩니다. 스폰서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하지 못한 경우나 일을 한 기간이 짧은 경우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받기 바랍니다. 특히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요구되므로 자녀들의 시민권 신청 시에도 꼭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2) 프로디 관련자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 지속

이 지면을 통해 여러 번 언급해 드려서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 프로디 학교와 연관성이 있으신 영주권자들은 시민권 신청을 자제하도록 하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 다음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관련된 범죄의 종류가 중범인지 그리고 경범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범죄인지 등을 꼭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3. 유효 기간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부 해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또 인터뷰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조건부 해제 신청 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제출하여야 인터뷰가 잡히는 것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시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장례 칼럼

누군가 널 위하여

지난주 중 한 교회를 방문하였다. 출입문에서 마주 보이는 벽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라고 쓴 초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서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한다는 내용일 것이다. 자주 불러온 복음성가의 제목이기에 내게도 친숙한 표현이다. 익숙하기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그 문장이 마음 무겁게 다가왔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 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곡은 주로 여럿이 함께 부른다. 하지만 이 시(가사)의 내용은 철저하게 혼자일 때이다. 우리는 한 생을 살면서 이런 외로움에 처할 때가 있다.

약 30년 전 교회에서 만난 부부가 있었다. 자식이 없고 남편이 일 나가면 하루 종일 전화 한통 오는 데가 없다고 한 그 부인의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울린다. 그때나 지금이나 외로움은 우리 가까이 존재한다. 가사처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한다는 생각이 들까? 외로움과 어려움이 바로 눈앞에 존재하기에 감정과 사고력이 마비되는 상태에서 무엇이 절실할까? 잡을 수 있는 손이고 공감하며 하소연을 들어주는 마음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려는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훗날 지나고 보니 구릉이었는데 당시에는 태산처럼 보여 낙망하여 주저 앉는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인가?

이번에도 생과 사를 자신이 결정한 가슴 아픈 경우를 담당하게 되었다. 일상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끈임 없이 존재하는 인생들의 연약한 모습이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30대 중반 이후의 성인들이지만 며칠 전에는 12살 어린 소녀가 집에서 일을 저질렀다. 꽃이 피기 전 이제 막 맺히려는 아름다운 봉오리가 꺾여졌다. 한번도 만난 적 없고 연고가 없는 타민족 장의사인 나도 시종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12살 아이가……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외로웠으면 내게라도 와서 얘기하지. 알고 보니 부모 모두가 새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 어린아이가 짊어졌던 삶의 무게와 결정할 당시의 환경을 알 수는 없지만 결과를 나의 두 손으로 받으니 아픈 마음 금할 길 없다. 환송식에 그 아이의 친구들 수십 명이 왔다. 그 어린 소녀들은 순진한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 이렇게 친구들이 많은데……,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얘기할 대상이 한사람도 없었단 말인가? 내가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고 얘기 할 사람을 그렇게도 못 찾았을까?

인생은 원래 혼자서 걷는다고 한다. 하지만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싶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이브를 만드셨고 가족을 두셨다. 사람이 성인으로 성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부모가 절대자를 대신한다. 그래서 부모의 삶이 중요하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라는 이 한마디의 뜻을 알게 되며 신앙인으로 자립할 때까지는 실질적인 도움의 표현이 한 생명을 구하리라 생각된다.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무거운 마음이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

이효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쉴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쉴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